

9·11 테러 5주년

2 반미 이슬람주의 확산

광주일보 독자위원회 제6차 회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부인 로라 부시 여사가 9·11 테러 5주년을 맞아 세계무역센터 건물터인 '그라운드 제로'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년 전 미국을 강타한 9·11 테러는 미국에만 상처를 준 채 끝나지 않았다. 미국의 맹방을 자처하는 서방 유럽국들도 이제 미국에 이어 제2의 테러 표적이 되고 있다. 9·11 테러 후 본격화한 미국의 대 테러 전쟁은 반미 성향의 이슬람주의가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숫자로 살펴본 9·11 테러 5주년

- ▲250달러=비행기를 탈 때 승객 한 명이 내야 하는 보안 요금
- ▲2~3분=승객이 비행기를 탈 때 금지된 물품 휴대 여부 검색때문에 더 걸리는 시간
- ▲5위='미국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직장' 리스트 중 CIA의 순위. 1위는 디즈니, 2위는 구글.
- ▲50%=9·11 테러로 자신의 현재 삶의 방식이 영향을 받았다는 미국인의 비율
- ▲95%=9·11 테러 소식을 들었을 당시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 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미국인의 비율
- ▲2,662명=이라크 전쟁에서 죽은 미군의 숫자
- ▲135만명=2001년 이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파병된 미군의 규모.
- ▲4천만개=미 교통안전청(TSA)이 공항 검색을 맡은 2002년 11월 이후 압수된 휴대금지 물품 수
- ▲1억5천만달러=전 세계적으로 동결된 테러리스트의 자산
- ▲4천320억달러=이라크전과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미 의회가 승인한 예산 규모

6 '끝모를 대테러 전쟁' 이슬람권 분노

◇유럽도 테러 노이로제=스페인과 영국은 부시 미국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을 적극 지지했다는 이유로 마드리드 열차 테러와 런던 7·7 테러라는 대참사를 겪어야 했다.

유럽은 이제 현실화 된 테러의 위협 속에서 대테러법 제정, 공항 검색 강화, 개인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속속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테러 공포증 속에서 무고한 이슬람인들이 테러 용의자로 오인되고, 보안을 이유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유럽, 테러 현실화...인권침해 빈발

'부시의 푸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과 가까운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테러범들이 겨냥하는 주요 표적이 됐다. 영국은 지난해 7월 7일 런던 시내 지하철과 버스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터진 자살폭탄 테러로 52명이 사망하고, 700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하는 대참사를 겪어야 했다.

앞서 스페인은 2004년 3월 11일 마드리드 일원 통근열차 선로에서 연쇄적으로 터진 폭발로 출근길 시민 191명이 숨지고 1천500여명이 부상하는 대참사를 겪었다.

독일도 이번 여름 한바탕 테러 위협에 시달렸다. 독일 경찰은 지난달 18일 도르트문트와 코블렌츠에서 열차 내에 숨겨둔 폭탄 가방 2개를 찾아냈다고 밝히고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다.

이렇게 유럽 곳곳에서 실제로 테러가 터지거나 테러 음모가 사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유럽 각국은 테러를 막기 위한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범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인권까지 침해하며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미(反美) 이슬람주의 발흥=9·11 테러 이후 5년동안 미국이 대 테러 전쟁의 무대로 삼은 중동 이슬람권은 격변했다. 9·11 테러는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전체 이슬람권의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다.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은 이슬람의 2대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사우디아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미국의 의도를 알라(무슬림들이 말하는 유일신)가 이슬람권에 내려준 축복인 검은 황금, 즉 석유자원을 강탈하고 아라비아 반도의 군 지지를 교두보로 삼아 무슬림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9·11 테러 당시 이슬람권에서는 빈 라덴의 이념을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견해로 치부하는 시각이 주류였다. 그러나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벌여온 대 테러 전쟁은 반미 이슬람주의가 아랍권과 이라크 국경을 넘어 주변 아랍권 국가들로 파급되는 효과를 낳았다.

이집트에서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이슬람이 해결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적극적인 반미를 주장했던 무슬림형제단이 20%의 의석을 얻어 친미 세속 정권인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집권 국민민주당(NDP)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떠올랐다.

"이슬람이 해결책" 反美벨트 구축

또 올해 1월에는 이슬람주의를 좇는 팔레스타인 저항단체 하마스가 미국의 입김에 따라 움직이던 세속 정파인 파타당을 물리치는 돌풍을 일으켰다. 레바논에서는 시아파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가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비등하게 싸울 만큼의 막강한 세력으로 컸다.

이란은 이슬람권을 상대로 대 테러 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핵 개발 문제를 놓고 양보 없는 대치상태를 이어감으로써 중동이슬람권의 맹주를 자처하는 친미 아랍국가인 이집트와 사우디 아라비아를 따돌리고 이슬람권의 주도국으로 부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 테러전쟁 중심지인 중동 지역에서 반미 이슬람주의의 벨트가 형성됐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특히 9·11 테러 5주년을 코앞에 두고 발발한 레바논 전쟁은 중동 아랍권에서 이슬람주의를 더욱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정후식기자 who@



광주일보 독자위원회 제6차 회의가 지난 5일 오전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수애(목포대 사회과학부 교수)·문병훈(지역언론개척연대 대표)·조경원(본사 편집국 부국장)·윤영현(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도박실태 심층 분석 아쉬워"

광주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문병훈) 제6차 회의가 지난 5일 오전 11시 본사 14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문병훈(지역언론개척연대 대표)·윤영현(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이수애(목포대 사회과학부 교수) 위원 등이, 본사에서는 조경원 편집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독자위원들은 7~8월 두 달 동안의 지면 분석과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수애(이하 이) = 9월 5일자 신문은 들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1면 편집이 깔끔했다. 시각적으로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게 잘 만든 것 같다.

주말판으로 나오는 '복스', '엔터테인먼트'란의 경우 영어 제목을 쓸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 복스의 책 소개 부분도 제작 기준이 없이 단순한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17면 TV란도 마찬가지다. 요즘 방송 드라마의 경우 대부분 다음 주 예고편을 반영해주는데 굳이 신문에서까지 TV 프로그램 예고편을 게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윤영현(이하 윤) = 지난 두 달간 광주일보가 많이 바뀌었다. 그동안 지방지라면 지방 주요 이슈를 1면 머릿기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수차례 한 것 같은데 이제 반영되는 것 같다. 5일자 1면의 경우 주요 이슈를 제대로 다룬 것 같다. 최근 신선했던 차장급 기자들의 칼럼 '현장과 시각'도 제목, 내용이 좋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은 제목을 함께 달아줬으면 좋겠다.

5일자 10면 '침체된 광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활성화됐다'는 기사는 적절했다. 향후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계속 기사화했으면 한다.

'현장과 시각' 참신...정치 편향 사라져

▲문병훈(이하 문) = 2개월전에 비해 분명히 개선됐다. 흠잡을 것이 별로 없다. 정치적으로 쏠림 현상도 적어졌다. 사실과 논조도 중립적이다. 광주일보사가 운영하는 합령 다이내스티 골프장 홍보기사도 한 번(8월25일 23면) 밖에 나오지 않았고 크기도 작았다. 많이 발전한 것이다.

지난 4일부터 시리드로 개재된 '할로 못찾는 기업도시'라는 기사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기사였다. 또 광주

비엔날레 지상전이라는 제목으로 1면에 계속 게재하는 것도 관심을 고조시킨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했다.

또 전국 이슈가 된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관련, 지난 8월 22일자 '광주·전남 도박광풍 성인 게임장' 기사도 광주·전남 지역의 상황을 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다만 지면을 할애, 광주·전남 지역 도박 실태를 심층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문=파업 만능주의의 노동 운동이 주는 피해나 이를 극복한 사례 등도 제시해 줬으면 한다. 아직 광주 지역에는 대기업 중심의 노조 정신이 남아 있는 만큼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광주일보의 경우 최근 지나친 보수주의로 인해 자칫 자본가 시각에 편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다면 문제가 없다.

파업 타결 뒤 실상 취재해 줬으면

▲문=그런 면에서 지난 8월 21일자 '기아차 광주 공장 파업 한달' 기사는 잘 한 것 같다. '일 안해도 매년 임금 보전', '적자 상황 노조 요구 무리', '광주공장 6천800대 생산 차질' 등으로 나뉜 기사는 좋은 기사였다.

▲문=제목도 잘 뽑았다. 파업을 했더라도 타결 뒤 타결 장려금·생산보조금·민·형사상 취소 등이 이어지고 대기업 노조가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도 없다. 다만 협력업체에게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이런 상황을 면밀히 취재, 기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며,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곤란하다.

▲문=전시 작풍권 문제의 경우 어느 쪽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국익이 무엇인지, 충분히 심사숙고한 뒤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장관 들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아닌가.

설령 보수적이라는 지적을 받더라도 분명한 입장이 있다면 치고 나가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남의 것을 따라 가거나 특별한 의식이나 논조 없이 "글쎄"라는 태도는 곤란하다. 예전 같으면 조·중·통 논조를 따라 갔을 것 같은데 신중히 심사 숙고하는 것 같다.

/정리=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日, 한반도 감시 정찰위성 발사 성공

한반도 감시를 주요 임무로 하는 일본의 정찰위성이 11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이날 오후 1시35분 가고시마현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정보수집위성(광학위성)을 H2A로켓 10호기로 쏘아 올려 무사히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위성은 고도 400~600km 상공의 궤도를 선회하면서 고성능 디지털카메라와 망원렌즈로

지상을 감시하게 된다. 특히 지상의 1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어 북한의 군사시설과 일본 주변의 자연재해 상황을 관측하게 된다. 일본은 이날 발사로 광학위성 2기와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을 감시하는 레이더위성 등 3기의 정찰 위성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내년초 정찰 위성 1기를 더 쏘아올려 모두 4기로 지상의 어느 지점이라도 하루 1차례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연합뉴스

사무용 가구의 모든것

클릭한방으로

www.hanboGAGU.com

한보가구 02-8202-9100

사무용의자 전문판매업체

토치 광주총판

TOUCH

사무용의자 전문판매업체

02-8202-9100

가정의 환경을 위한

세심함 속에는 신의 환기유닛

Airpass 있습니다

DOOR TO DOOR

02-8202-9100